

“젊은 세대의 참신한 사고와 발상이 보험산업의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험서비스에 적용한 아이디어 많아 손보사 인사총무 담당 임원의 채용관련 특강에 귀 기울여

한국보험신문, 일본보험매일신문, 중국보험보가 함께 주최하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본선대회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콘테스트는 한국보험신문에 접수된 100여 편의 출품 제안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국내 10개팀과 일본에서 참가한 1개팀 등 총 11개팀이 15분간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심사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본선대회 진출 팀들의 제안서 가운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보험상품과 보험서비스에 적용하는 주제가 많았다. 이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헬스케어, 디지털 범죄, 사이버보험, IoT 등 디지털보험의 핵심 키워드들이 망라됐다.

박성훈 현대해상 장기상품본부장은 “지금 보험산업은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미래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보물’로 대상을 받은 보물찾기 팀은 최근 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기소액보험을 주제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현직 보험인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또 일본 대표로 출전한 Three Arrow 팀은 ‘관광에서의 매개변수 보험의 가능성 검토’를 통해 관광업에서 풍문(루머)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없다는 것에서 착안한 상품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아쉬움도 남았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넘버원 베이징대 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보내왔으나 중간고사 일정이 겹치면서 결국 본선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했다.

한편 김종선 현대해상 전무는 11개팀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보험사의 채용과 관련한 특강을 실시해 참가 대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상식까지 본 행사가 마무리된 후 가진 만찬은 국내외 대학생들과 보험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기성 보험인들이 어울려 보험산업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본선대회에는 주최측에서 이정용 한국보험신문 사장과 모리가와 마사하루 일본보험매일신문 편집장을 비롯해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홍중 생보협회 상무, 고봉중 손보협회



상무, 류근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심사위원장), 이상립 한국보험학회장(목포대 교수), 허연 중앙대 교수,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 김기성 보험연수원 부원장, 김종선 현대해상 전무, 박성훈 현대해상 장기상품본부장,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 남상우 리치플레이넷 대표, 서한석 직토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섭 기자 bbakddol@insnews.co.kr

>>이모저모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제2회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는 국내 인슈어테크 분야의 선두주자인 직토의 서한석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서 대표는 대회가 끝난 뒤 기자를 만나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면서 “대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이었으며, 이런 대회를 통해 기성 보험인과 미래 보험인이 소통하면 보험산업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아이디어도 풍부한 입상자들을 채용과 연계한 프로그램까지 함께 도입하면 더 많은 참가자를 모을 수 있고 콘텐츠의 질도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심사위원 가운데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와 허연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선과 본선 심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보다 해외사례

는 학생들이 나름 창의적 아이디어도 냈지만 저빈도·고심도 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기본특성을 모르는 듯도 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본선대회에 일본 대표로 출전한 쓰리 어로우즈(Three Arrows)팀은 일본보험매일신문이 주최한 선발전에서 300여명의 학생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서울에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팀장인 구라모토 슈토 학생은 “일본은 RIS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보험사와 보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도 대학생과 현직 보험인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말랑말랑하면서도 참신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래 생명보험협회 홍보팀장은 대회 장소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인 만큼 누구보다도 오래 대회현장을 지켜봤다. 그는 “대회 시작 2시간 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참가 대학생 대부분이 나보다 일찍 도착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학생들의 열정, 역량,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도
무엇보다...

‘독 같은 보험? 구독 같은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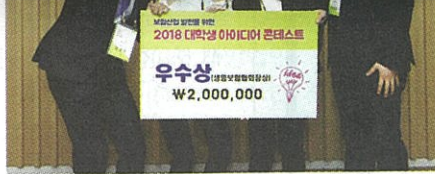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인 생명보험협회장상을 수상한 ‘핀테크록스’ 팀은 건국대학교 내 마케팅 동아리로 활동하던 인원에게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가 합류해 공모전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팀장 김경민 학생은 이미 올해 여러 차례 공모전을 준비했지만 모두 예선에서 쓴 잔을 마셨기에 이번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하고 우수상까지 수상해 기쁨이 배가됐다고.

김경민 학생은 “올해 여러 공모전을 준비했는데 그 중 보험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특히 같은 수업을 들던 친구들을 모아 팀을 꾸렸는데 다 모아 보니 ‘드림팀’의 느낌이 들었다”며 “핀테크록스라는 이름도 금융산업에서 활발해진 핀테크를 학

생들이 편하게 신고 다니는 신발 브랜드와 결합해 약간 즉흥적으로 지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센스 넘치는 작명이었다”고 말했다.

김수진 학생은 “사실 보험은 약관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어렵다. 제안서 초반부터 수학적 모델링 및 예상수익을 만드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마케팅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핀테크록스 팀원 대부분이 마케팅 쪽에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영일 학생은 “특히 ‘구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준비과정을 거쳤다. 보험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론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대부분 기업이 사회적 공헌(CSR)을 상투적인 선에서 끝낸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잡을 수 있었다”며 “특히 이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기까지 김수진 학생의 고군분투가 있었다. 우수상까지의 공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최수정 학생은 “본선에 진출한 면면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교, 도쿄경제대학, 간사이대학 등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많아 약간 기가 죽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과정을 돌아켜봤을 때 발표가 지나면서 점점 묘한 자신감이 들었다. 노력의 결실을 팀원 모두가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홈 IoT 해킹 손해보험의 시작 ‘스마트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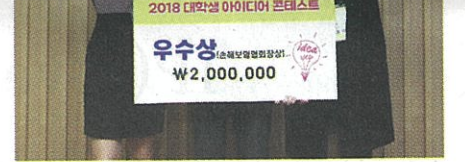
아이엔유(Insurance&You) 팀은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3학년 정종성·정지우 학생, 소비자이동학과 4학년 김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홈 IoT 해킹 손해보험의 시작 스마트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우수상(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아이엔유 팀의 팀장 정종성 학생은 “아이엔유를 제외한 10팀의 본선 발표를 들 때는 말 그대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여러 팀들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 가능성까지 갖춘 아이디어들을 뽐냈기 때문”이라며 “사실 우리 팀은 본선에 진출한 경험만으로도 만족하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수상에 호명되었을 때 정말 얼떨떨하면서도 뭉클함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아이엔유 팀은 “보험과 IoT 기술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본선 진출 확정 후 준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때문에 교내 보험 전공 교수님과 IOT 기술 타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며 구체화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저희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신 두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우 학생은 “발표 당시 한편으로는 수상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순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떨리지 않아 준비한 내용을 심사위원들께 잘 전달할 수 있었다. 답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수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며 “특히 발표 중 광고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광고



모델로 예로 든 연예인 커플을 언급했을 때 심사위원분들이 마주보며 웃으시는 상황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사실 주눅이 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은 학생은 “응원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3~4학년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이 시기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는 수상의 기쁨과 함께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1회 와세다대 팀처럼 우리 아이디어도 상품화 기대”

▶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Three Arrows팀

도쿄경제대학 슈토 쿠라모토 · 켄타모리

간사이대 카즈키 야마니시

‘관광에서의 매개변수 보험의 가능성 변수’

“짧은 방한 일정 동안 한국 음식도 맛있었고, 대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가을을 맞은 서울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는데 한·중·일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발된 학생들이 한 데 모인 자리에서 수상의 기쁨까지 누렸으니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 대표로 출전한 Three Arrows 팀은 도쿄경제대학 구라모토 슈토, 모리 켄타, 간사이대학 야마니시 카즈키 등 3인이 만든 팀이다. 도쿄이과대학 야나세 노리요시 교수의 지도로 ‘관광에서의 매개변수 보험의 가능성 검토’를 주제로 출품해 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팀장인 구라모토 학생은 “300명 넘게 참가한 일본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일본 내에서는 대학생들과 보험업



계가 비교적 가까워 관련 학회나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며 “실제로 지난 1회 대회에서 입상한 와세다대팀의 치매보험이 일본 보험업계에 출시된 것도 이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켄타 학생은 “일본에서 한류 열

풍은 엄청나다. 우리도 트와이스 멤버 사나를 매우 좋아한다”며 “K-POP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쌓은 한국에 처음 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는데 이번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들 대부분 영어를 잘해 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대회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또 야마니시 카즈키 학생은 “한국과 일본의 보험산업 모두 시장이 성숙했으며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는 같다”며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보험의 미래도 전망할 기회를 마련하는 국제대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특히 이같은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을 지도한 야나세 노리요시 교수는 “일본에 있을 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와 학술 교류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회 당일 성균관대 소속 학생들도 본선에 진출하고 안면이 있던 정홍주 교수가 본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대회 현장에서 만나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이 좋게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디어 중소기업 돕는 상품으로 태어나길”

▶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SCAN팀

성균관대 박해은 · 신정원 · 이은진 · 정제일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사이버 보험’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SCAN’ 팀은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사이버 보험’으로 장려상(한국보험신문사장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경영학과 박해은, 신정원, 이은진 학생과 사학·컴퓨터공학과 정제일 학생은 마케팅학회로 활동하던 중 이번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접하게 됐다.

팀장 박해은 학생은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보험 아이디어로 한국보험신문사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사이버보험 아이디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돕는 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마침 대회 당일 일본보험매일신문 편집장으로부터 지난 1회 대회에서 입상한 와세다대학의 아이디어가 일본에서 현실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진 학생은 “아이디어 콘테스트 일

정을 확인해 보니 본선 발표 당일인 11월 9일이 팀원 신정원 학생의 생일이였다. 이에 2018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하는 것을 정원의 생일 선물로 삼자며 의기투합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수상의 기쁨을 맛보게 돼 사실 어안이 벙벙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신정원 학생은 “오랫동안 모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 함께 맛있는 밥은 물론 야식도 많이 먹었다”며 “늦게까지 서로가 아이디어를 짜낸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사당역 근처 감자탕 집에서 먹었던 묵은지 김치찌개, 세미나실에서 시켜먹었던 불족발은 말 그대로 ‘힐링음식’과 같았다”고 말했다.

정제일 학생은 “특히 본선에서 일본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인상깊었다”며 “외국 대학생들은 어떤 보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알 아듣기 쉽게 영어로 말씀해주셔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CAN 팀은 “우승상금의 일부는 마케팅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준비 기간 동안 격려를 아끼진 않은 학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YPC (Young Professional Committee)>

김건무(한양대 경영학과) · 이웅석(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제안서 : 디지털 범죄 보험

플랫폼을 이용한 All in One 모델로 개인 대상 디지털 범죄 보험을 제안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해 빠르게 발전하는 ICT 기술, 이에 맞춰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자의 비용 절감과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업에 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것 그리고 보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보험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물찾기>

전승훈(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김소현(성균관대 통계학과)

소자영(연세대 교육학과)

손범수(경희대 경영학과)

▶제안서 : 일상생활 속의 작은 보물

2030세대는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의 작은 보물'이라는 주제로 나노보험, 보험선물이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본선 무대에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과 경쟁을 하



게 되겠지만, 저희가 서게 될 무대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본선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Three Arrows>

슈토 쿠라모토 · 켄타모리(도쿄경제대학)

카즈키 야마니시(간사이대학)

▶제안서 : 관광에서의 매개변수 보험의 가능성 검토

관광 분야에서는 풍문 피해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숙박 시설에 매개변수 보험 모델을 적용해 이같은 풍문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에도 이런 대회 있었으면”

비슷한 또래의 외국인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보험과 관련된 이같은 아이디어 콘테스트가 없어 이번 대회가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각했던 점은 '과연 이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할까?'였습니다. 따라서 본선에서도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실

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성있는 보험>

조형준 · 김대현 · 김진호 · 황인성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제안서 : ILS를 이용한 개성공단보험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 평화시대의 리스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상품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남북한 협력사업인 개성공단과 관련한 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연계증권을 이용한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험 계리사를 꿈꾸는 대학생이 뭉쳤다”

보험계리사를 꿈꾸는 4명의 대학생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계리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보험상품을 구상할 수 있



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본선 진출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핀테크록스>

김경민 · 김수진 · 서영일 · 최수정(건국대 경영학과)

▶제안서 : 독 같은 보험! 구독 같은 보험!

2030의 젊은층은 보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30의 젊은층과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래의 보험산업이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보험은 어렵지 않다. 다만 낯설 뿐이다”

“보험은 어렵지 않다. 다만 낯설 뿐이다!” 젊은층이 낯선 보험에 대해 친근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본선 대회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베이징대>

류어크어신 · 쟡샤오위(베이징대학 경제학부)

▶제안서 : 인공지능 및 자동차보험산업 개요와 전망

자동차산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가격 결정부터 클레임 청구까지 투명성이 높아져 보험사기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과 많은 대화 원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험산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만나게 될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